

문화

“현대와 전통 양극단 초월한 혼이 깃든 불상 조성이 원력”

서철교 불교조각가

10년 동안 서양 조각에 몰두하던 스물일곱의 청년은 대학을 졸업하며 어떤 길을 가야할지 망설였다. 그가 공부했던 홍익대 앞에 친구들과 입시미술학원을 열기도 했지만 여전히 청년의 마음속에는 창작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다. 그러던 어느날, 지금은 아내가 된 당시의 여자친구가 새로운 길을 알려주었다. 탕화를 그리기 위해 동국대 불교회화과로 편입했던 여자친구는 그에게 불교조각이 잘 맞을 거라고 했다.



서철교 조각가는 현대와 전통 양 극단의 세계를 뛰어넘어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진=박재환 기자

여자친구가 보여준 불상들을 보는 순간 그는 주저 없이 이 세계로 뛰어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지금 그는 전통과 현대미의 조화를 이룬 작품으로 불교미술계에서 주목받는 조각가가 되었다. 현대와 전통 양 극단의 세계를 뛰어넘어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담아내고 있는 서철교 조각가(44). 그래서 그의 작품은 익숙한 듯하면서도 낯설고 낯선듯하면서도 익숙하다. 그동안 다섯 번의 개인전과 다수의 그룹전을 거치면서 자신의 세계를 깨고 또 깨면서 새로운 작품 세계를 열어나가고 있는 서철교 조각가를 만났다.

서양과 전통 미술 동시에 수학

불상 조각 때 정신적 측면 천착

조계사 관음전 100관음상 좋은 예 10월 사면 불교박물관 출품 계획

상의 정신적인 측면에 천착하게 된 까닭은 서울 조계사 관음전의 100관음상을 조각하면서다. 그는 주불을 비롯해 과거 현재 미래의 33관음을 각각 조각해 총 100개의 관세음보살을 완성했다. 특히 주불인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은 기존의 도상 형식에서 벗어나 공간적으로 펼쳐놓은 형태의 작업을 완성했다. 2012년 12월에 시작해 2013년 9월까지 꼬박 10개월 동안 100관음을

조성하며 불상 작업은 혼자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처음 기획 단계부터 조계사 창건 100주년, 도심포교 100주년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관세음보살님 조성을 계획했어요. 제각각 다른 관세음보살님의 표정을 만들기 위해 경전을 읽으며 생각할 때마다 스케치하고 작업해나갔죠. 사실 혼자서 이 작업을 했다면 죽어 몇 년은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100개의 관세음보살님을 10개월 안에 조성해내면서 이 일은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관음 전 조성 이후 점안식에서 감동하며 환희심내는 신도들을 보고 불상 작업은 단순히 조형미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무엇인가가 깃들어야 야 한다는 것을 크게 깨달았죠.”

이런 경험들은 작가의 취향에도 큰 변화를 주었다고. “그동안 통일신라 작품이 미학적으로나 완성도 면에서 너무 완벽하고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고려 불상 역시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조선시대 불상은 균형미가 깨져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송유익불 정적 때문에 불교가 숨겨져야 했던 시기에 모든 걸치려는 생각 되고 조선시대 민중들이 진정 원하는 것만을 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조선시대 불상은 다른 어떤 시대보다 정신적인 힘이 크게 담겨 있을 거라는 결론을 내렸습시다. 앞으로의 작업은 불상의 내재된 정신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서 작가의 10월 중국 사면불교박물관 참여와 동국미술회 그룹전 등의 준비로 분주하다. “늘 내가 좋고 남도 좋아하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족스럽지 않는데 보는 이가 만족스럽다면 저에게 불행한 일이고, 또 혼자만 만족하고 관람객이 외면하는 작품이라면 그 또한 불행한 일이지요. 그래서 매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올해 안에 개인전도 열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정재숙 기자 bwjsh@tyunul.com

거문고 줄처럼 좁은 길 지팡이 끌고 들어가네

천년고찰과 천년 은행나무

정상 해발고도 1157m의 용문산이 품고 있는 용문사는 신라 신덕왕 2년(913)에 대경(大境)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한다. 이 천년고찰은 1100살 은행나무와 함께 널리 알려져 있다. 천연기념물 제30호로 지정된 용문사 은행나무는 마의태자가 망국의 한을 담아 심은 것이라는 설도 있다. 키가 40m로 우리나라 은행나무 가운데 가장 크다.

큰 산과 큰 나무를 배경으로 한 도량은 깊은 역사와 함께 많은 고승들의 흔적이 있기 마련. 용문사도 예외는 아니다. 신라의 대경대사 창건 이후 고려 우왕 4년(1378)에 정지국사 지천이 대장경을 짓고 개성 경천사에 있던 대장경을 이전하여 보관했다. 이 대장경은 원래 강화도 용장사에 있던 것으로 왜구의 노략질에 화를 입을까 염려하여 개성 경천사로 옮겼다가 다시 용문사로 모셔 온 것이다. 이는 고려 시대에는 용문사가 상당히 중요한 절이고 안전한 곳이었음을 알게 한다. 지금은 소실되어 전하지 않는다.

조선조에서도 용문사는 세조와 그의 비정희왕후의 후원에 의해 상당히 큰 규모로 발전했다. 세조 4년에 지어진 <용문사기>에는 용문사를 ‘동국제일의 사찰’로 묘사되고 있을 정도다.

산나물로 소통하는 인정

용문사가 있는 계곡은 1972년 일찌감치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었다. 근래 새롭게 정비된 주차장을 지나면 2008년 양평 문화원 용문분원과 향사연회 등이 설립한 한시 비석이 빼곡하게 서 있어 산과 절 그리고 계곡의 역사와 운치를 전해준다. 시비들을 주마간산으로 보면 물렁이에 불과하겠지만, 차분히 읽어 보면 정신이 맑아지고 옛 선비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산소향연천용문(山蔬香攢龍門)
원향심지후의존(遠誼深知厚意存)
방장고량하족선(方丈膏梁何足羨)
일단과패부영원(一簞 糗糒榮淸)

유명한 용문산 나물 향기롭고 연하여
멀리 보내주시니 후한 뜻을 깊이 알겠네.
주지스님이 보낸 음식
부러울 것 없이 죽하며
한 바구니 싸온 음식 다 먹고 나니
부귀영화 부럽지 않네.

조선 중종 때의 문신으로 <동몽선승>을 지은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 1478~1543)의 시다. 제목은 ‘용문승유 선향연소사기(龍門僧惟善餼蔬藪謝寄)’로 ‘용문산 승려 유선이 연한 나물을 보내

임연태 시인 山寺에 깃든 선비의 詩心

용문사 ㉔



수령 1100살의 용문사 은행나무(천연기념물 제30호)는 용문사의 변함없는 상징물이다.

주여 감사하며 시를 보내네’는 뜻이다. 용문사의 스님과 얼마나 친분이 두터웠으면 봄날 연한 산나물 한 바구니를 보냈을까? 그 푸릇푸릇한 인정도 인정이지만, 한 바구니의 나물을 받아먹고 그 고마움을 시로 남긴 시인의 마음도 봄나물처럼 싱그럽다.

그렇게 인정과 인정이 서로 통하여 ‘한 바구니 싸온 음식 다 먹고 나니 부귀영화 부럽지 않네’라는 자족의 노래가 나오는 것이다. 조선의 하늘 아래서는 스님과 선비들이 스스럼없이 정을 나누고 풍경과 문학을 즐긴 경우가 많다. 시대 이념과 상관없이 삶의 내용을 채워나간 지성인들의 몸짓이 아름답다.

세간과 출세간의 거리

사가정(四佳亭) 서거정(徐居正 1420~1488)도 스님들과 널리 사귀 대표적 선비인데 용문사 스님과도 각별했던 모양이다.

회수용문삼벽천(回首龍門擲碧天)
초제일로세어현(招提一路細於絃)
휴공우입연라거(携笻又入烟蘿去)
사월산심속두견(四月山深屬杜鵑)

머리를 돌리니 용문산이 하늘에 꽂힌듯
거문고 줄처럼 좁은 절점으로 가는 길
지팡이 끌고 무성한 숲으로 들어가니
초여름 깊은 산 두견새 소리만 이어지네.

이 시의 제목은 ‘용문사로 돌아가는 은상인을 전송하다(送閣上人還龍門寺)’인데 서거정 시의 특유한 섬세함과 깊은 사색을 유도하는 상징체계가 돋보인다. 산으로 들어가는 스님을 배웅하고 보니 절을 품은 산은 아득히 높고 절로 향하는 길은 좁아 거문고 줄 같다. 지금 시인은 산이

하늘처럼 높다든 표현으로 이별의 아쉬움을 극대화시키고, 절로 가는 길이 거문고 줄 같이 좁다 하여 세간과 출세간의 거리를 상징하고 있다. 이러한 극적인 대비와 상징은 서거정의 학식과 감수성이 아니고는 누구도 흉내 내기 어려울 것이다.

시의 전구와 결구는 앞의 상황을 더없이 장엄하게 완성시켜 준다. 즉 헤어질 스님이 지팡이를 끌고 무성한 숲으로 사라져 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그 그림 같은 상황에 두견새 소리를 개입시켜 몽롱하던 정신에 번쩍 번개를 일깨 한다. ‘무성한 숲’과 ‘두견새 소리’가 주는 대비의 힘이 아주 강하여 이별의 아쉬움이 해탈의 순간으로 돌변하는 듯하지 않은가?

오성대감으로 널리 알려진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 1556~1618)도 용문산을 둘러 오래된 절(용문사)의 풍경을 감상하고 애잔한 마음을 읊었다. ‘돌아가는 길에 용문산에 들어가다(還入龍門山)’라는 작품이 비석에 새겨져 있다.

사고승희소(寺古僧稀小)
대경수노창(臺傾樹老蒼)
수성환하각(水聲喧下磫)
인어정회랑(人語靜廻廊)
북방군산적(北望群山隔)
서귀일영랑(西歸一影涼)
비가위하사(悲歌爲何事)
처단불성장(處斷不成章)

절은 오래 되었으나 스님은 적으며
축대는 기울고 나무는 늙어 푸르렀네.
요란한 물소리 산골짜기에 흐르고
고요한 말소리는 회랑에서 들려오네.
북쪽을 바라보니 산들로 막히고
서쪽으로 돌아오니 그림자 서늘하네.
구슬픈 저 노래는 무슨 사연일까
처량한 생각에 시 한수도 못하겠네.



인간미를 불어넣은 ‘수월관음상’.



서철교 조각가가 새롭게 해석한 서울 조계사 관음전의 100관음상. 오른쪽 맨 끝은 주불의 천수천안을 해체한 모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동상 / 특허청장상 수상 CE 인증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전동운반차의 선구자! 큰우테크주**

“상부에 귀의하옵고, 안녕하십니까?
저희 큰우테크는 현재 동종업계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친환경 전동 농산업 기계’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큰우테크의 제품 중 사출에 꼭 필요한 전동 운반차를 안내 드립니다.
재수, 공양, 연동 운반차 및 설치에 꼭 필요한 제품으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이용 가능한 전동 운반차 이오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오.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출에 최적화된 다섯가지 특징!

- 1. 안전한 공양 및 제품 운반!**
평지는 물론 경사진 길에서도 차체의 기울기 조절을 통해 200kg까지 거뜬하게 운반합니다.
- 2. 간편하고 안전한 사용법!**
자전기 운전만 간단합니다. 10분의 연습 후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전자브레이크 장치로 사고위험이 없습니다.
- 3. 저렴한 유지비!**
한달 휴대전화 충전 요금이면 충분합니다.
- 4. 안전한 연동 설치 작업대!**
연동 설치와 같이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무거운 물건 등을 차량에 상·하차 시 유용합니다.
- 5. 소음 걱정 끝~!**
수명이 길고 힘이 좋은 99.9% 연방 배터리를 사용, 교묘한 사출 환경에 적합합니다.

※ 종단 / 교구 / 지역 / 신도회별 단체상담

문의전화 : 010-4630-7903, (053)801-7897, 7895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 82-6(검단동 887-160번지) www.kw-tec.co.kr

소승이 다라니를 매일 330독 기도 중 6월 15일 3시경 관세음보살님이 화현하시어 “사문은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많은 불자들에게 널리 보급하여 불자들이 더욱 빛나게 하라”는 계시와 붉은 글씨로 쓴 신묘장구대다라니(우측에서 좌측으로 쓰인 다라니)를 보여 주셨습니다.

이후 다시 정성으로 다라니를 사경하여 고급액자로 표구한 후 법당에 모시고 기도하니 6월 27일 관세음보살님께서 다시 화현하시어 미소를 띄우셨습니다.

소승이 이 뜻을 알고자 간절히 기도 정진하였지만 사경한 다라니의 모습에서 답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근래들어 그 답을 다시 찾으려다 문득 대 의정을 일으키게 되었고, 대 신심으로 매일 500독 1,000일 기도에 들어갑니다.

많은 불자님 액자 표구한 다라니를 각 가정에 모시고 기도 동참하시어 관세음보살님의 무량한 가피 입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동참 불자님은 액자 표구한 다라니를 각 가정에 모셔드리고 전 가족의 소원성취를 위해 매일 정성을 다하여 기도 발원 올려드립니다.

**기도 입재일은 8월 17일이며
기도비는 1년에 한가족 30만원입니다.**

대구시 달서구 월배로 424번지
지하철 1호선 송현역 3번출구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 도량 수정사 해명 합장
전화 053)621-6367 / 010-4028-3622

대한불교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66권의 저서 출간!

바른 불자가 됩시다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잡이!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현대인의 공공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완전한 불공예식법
우리말 불공예식법 (석문의범)

불공예식법이란, 우러러 공경을 다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로부터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구하는 예법 등을 총칭합니다. 이러한 귀중한 예법들이 흡족한 우리말본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종락) 50여 년 전 대구 보현사 시절부터 준비했던 원고를 정리하여 오늘에야 출간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이 시대에 맞는 석문의범

www.zenparadise.com 참조 ☎ 031-534-3373